

세무와회계저널
제8권 제4호 2007년 12월 pp.243~260
한국세무학회

세무조사 전후 이익조정의 양상*

김문현**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라는 이익조정의 개연성이 높은 사건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전후 이익조정의 양상을 실증하였다. 과세소득의 누락에 의해 세무조사를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기업은 이익조정을 통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조정함으로써 세무조사 위험을 감소시키고자할 것이다.

1998년부터 2000년도 사이의 상장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재량적 유동발생액으로 측정한 이익조정의 양상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세무조사 이전 세무조사기업의 이익조정은 유의적인 양(+)의 값이었으며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의 이익조정은 '0'과 다르지 않았다. 둘째, 세무조사 이전 세무조사기업의 이익조정은 조사된 3기간 동안 상승하였으나, 세무조사 이후 기간에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처럼 이익조정이 '0'과 다르지 않았다. 셋째, 기업특성을 고려한 유동발생액 설명 모형에서는 세무조사기업과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 사이에 유의적인 기업특성변수에 차이가 있었다. 세무조사 이전에는 이익조정이 증가하며, 세무조사 이후에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과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조사는 이익조정과 관련이 있고, 세무조사 전후로 이익조정 양상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세무조사는 과세소득을 조정한 결과이고, 이익조정은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업의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어> 세무조사, 이익조정, 재량적 유동발생액

* 이 연구는 2007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경영학과 부교수, moonkym@hufs.ac.kr, 031-330-4072

논문접수일 2007년 10월

게재확정일 2007년 12월

I.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세무조사와 이익조정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실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전후 이익조정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익조정에 대한 연구는 활발한 편이지만 세무조사 전후 이익조정 양상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ook-tax difference)는 재량적 발생액과 양(+)의 관계에 있는데, 이는 과세소득의 조정을 위해 이익조정을 시도하리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가 세무조사와 이익조정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과세소득과 회계이익 사이의 관련성을 고려하면 세무조사와 이익조정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¹⁾ 세무조사는 과세소득 조정에 대한 조사이지만, 과세소득과 회계이익 사이에 차이가 커질수록 세무조사의 위험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세소득을 누락한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이익을 조정하고자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 전후로 이익조정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세무조사라는 사건과 이익조정 사이의 관련성을 직접 다루고자 하였다. 그런데 기업은 세무조사라는 사건을 사전에 예상하고 이익을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일정 기간을 대상으로 이익조정의 양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만약 기업이 세무조사를 미리 예상한다면 세무조사 이전에 기업은 이익조정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무당국에 의한 법인조사에 대해 피조사법인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으므로 세무조사 이전에 이익조정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 이익조정이 사라지거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다. 이익조정과 관련된 과세소득의 누락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세액을 추정당하면 세무조사 이후 이익조정이 감소할 것이다. 이는 세무조사와 이익조정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또 다른 증거이며, 세무조사는 이익조정 제거에 유효한 수단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세무조사기업의 이익조정이 세무조사 이전에는 증가하다가 세무조사 이후 감소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이익조정의 측정치로 Dechow and Dichev(2002)의 연구모형을 이용하여 측정한 재량적 유동발생액을 사용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발생액 중 고정발생액은 주로 경영성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의사결정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렵다고 보고, 유동발생액 중에서 과거·현재 또는 미래에 영업현금흐름으로 전환되지 않는 부분을 경영자의 재량에 기인하는 것으로 측정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재량적 유동발생액이 기업특성 변수와 관련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을 고려하

1) 이익조정이란 ‘기업 또는 경영자가 사적인 이익(private gain)을 얻을 의도로 외부에 재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Schipper 1989) 또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 투자자나 채권자를 오도하거나 회계수치에 기초한 계약관계에 영향을 줄 의도로 경영자가 재무보고나 회계처리과정에 개입하여 재무정보를 변경시키는 것’(Healy and Wahlen 1999)으로 정의된다.

여 기업특성을 통제한 후의 재량적 유동발생액을 추가로 측정하였다. 기업특성변수에 의해 재량적 유동발생액을 설명하고 기업특성을 통제한 후 재량적 유동발생액이 '0'과 다르지 않다면, 기업특성 변수는 재량적 유동발생액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998년부터 2000년도 사이의 기간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상장 제조기업과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상장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결과, 본 연구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세무조사 이전 세무조사기업의 이익조정은 유의적인 양(+)의 값이었으며 세무조사를 앞둔 3기간 동안 상승하였다. 그리고 세무조사 이후 기간에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과 동일하게 이익조정이 나타나지 않았다. 기업특성을 고려한 유동발생액 설명 모형에서는 세무조사기업과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 사이에 유의적인 기업특성변수에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는 이익조정의 개연성이 큰 사건을 대상으로 이익조정의 양상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익조정에 대한 선행연구에 비교해 본 연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를 하는 이익조정의 개연성이 큰 사건을 대상으로 이익조정을 검증하였다. 세무조사는 기업의 과세소득의 누락의 결과이며 과세소득의 조정은 이익의 조정과 관련이 있다. 더욱이 세무조사에 대한 자료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거의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둘째, 세무조사 기간 전후의 이익조정의 양상을 검증하였다. 이익조정은 세무조사 이전, 세무조사 시점, 세무조사 이후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재량적 유동발생액의 측정에 기업특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에 재량적 유동발생액을 설명하는 기업특성 변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II. 선행연구

이익조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있음에도 세무조사 전후 이익조정의 양상을 검토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데 어려움이 큰 것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와 이익조정 사이의 관련성을 고려한 연구로는 심충진 외(2006)의 연구 정도이다. 이 논문은 세무조사여부와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 사이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로 이익조정을 통제변수로 고려하고 있다. 실증결과에 따르면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보다는 재량적 유동발생액으로 측정된 이익조정이 세무조사여부와 관련성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량적 발생액을 통제변수로 고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세무조사와 이익조정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는 세무조사 시점만을 분석함으로써 세무조사 전후로 이익조정과 세무조사 사이의 관련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루지 않았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이익조정이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에 기인함을 제시하였다. 회계이익 증가로 인한 혜택과 과세소득의 감소로 인한 세금절감 효과가 동시에 달성될 수 없다는 Mills(1998)

의 주장이 제기된 이후,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박종일·김경호(2002)의 연구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재량적 발생액 사이에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세무조사를 직접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가 이익조정의 원인임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Mills(1998)에 의하면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을 일치시키려는 세금유인이 존재하며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가 세무조사시 추정되는 세금비용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가 클수록 과세당국에 의한 조정금액(proposed audit adjustment)이 크다는 실증결과를 보고하였다. Mills and Sansing(2000) 또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그들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과 추가적인 세금 납부의 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세무조사가 과세소득의 누락에 의한 것인 만큼, 이 연구 결과로부터 이익조정과 세무조사 사이의 관련성을 예상할 수 있다.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와 세무조사 사이의 관련성, 세무조사 시점의 이익조정 등의 선행연구 결과로부터 세무조사와 이익조정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과세소득의 누락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이익조정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익조정의 대리변수로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한 연구는 비교적 광범위하다. 회계이익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 발생액으로 구성되는데, 발생액은 미래의 경제적 사건에 대한 경영자의 재량적인 추정 및 판단과 관련되어 있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나종길과 최기호 2001). 따라서 발생항목 중 경영자의 재량에 의존하는 부분은 보고시기의 조정을 통해 이익조정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발생액 중에서 정상적인 발생액을 제외하고 경영자의 재량에 의한 부분을 추정하는 데는 오차가 따르기 마련이다. 최근의 관련연구에서는 재량적 발생액을 추정하는 수정 Jones모형(Dechow *et al.* 1995)과 재량적 유동발생액 추정모형(Dechow and Dichev 2002)이 비교적 추정오차가 작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중 재량적 유동발생액 추정모형은 유동발생액 중 과거·현재 또는 미래에 영업현금흐름으로 전환되지 않는 부분을 경영자의 재량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한다. 발생액 중 고정발생액은 주로 경영성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의사결정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Kreutzfeldt and Wallace(1986)과 Guenther(1994)는 총발생액 중에서 유동발생액이 이익조정수단으로 사용되기 더 쉽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재량적 유동발생액은 기업특성과 관련 있음을 보여준 연구결과들이 있다. Kasznik(1999)는 재량적 발생액과 ROA 사이에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기업의 수익성이 높을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익성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재량적 발생액에 편의가 포함되는 문제가 야기된다. 한편, 실증회계이론(positive accounting theory)에 따르면 기업규모나 부채비율 등은 이익조정을 설명하는 변수이다(Watts and Zimmerman 1986 ; DeFond and Jambalvo 1994 ; Sweeney 1994 ; 김권중 외 2004).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이익을 크게 보고하는 유인이 있으므로 재량적 발생액은 기업규모와 음(-)의 관계를 부채비율과는 양(+)의 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규모는 생략된 여러 변수(omitted variables)에 대한 대용변수가 될 수 있으며(Becker *et al.* 1998), 대리인비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서 단정적으로 회계 계수의 부호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나종길과 최관 2003). 기업규모가 갖는 정보적 함의가 다양하므로 기업규모와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 사이의 관계는 실증을 통해 확인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Burgstahler and Dichev(1997), 전규안 외(2004)와 최정호(2005)의 연구에서는 손실더미변수와 재량적 발생액 사이에도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III. 연구의 설계

1. 연구가설

과세소득과 회계이익 사이의 관련성을 고려하면 세무조사와 이익조정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세무조사는 과세소득 조정에 대한 조사이지만, 과세소득과 회계이익 사이에 차이가 커질수록 세무조사의 위험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세소득을 누락한 기업입장에서는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이익을 조정하고자 할 것이다. 이익조정과 관련하여 Mills(1998)의 주장을 고려하면, 과세소득을 누락한 기업은 상응하는 수준에서 회계이익을 조정하여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은 기간별 일대일 대응이 이루어지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여러 기간에 걸쳐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조사 전후로 이익조정의 양상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세무조사와 이익조정 사이의 관련성을 세무조사 전후 이익조정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익조정과 관련된 과세소득의 누락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세액을 추정당하면 세무조사 이후 이익조정이 감소할 것이다. 이는 세무조사와 이익조정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또 다른 증거이다. 이는 세무조사가 이익조정 제거에 유효한 수단임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가설은 이익조정이 세무조사 전후로 세무조사기업과 비세무조사기업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통해 검증한다.

기업이 세무조사를 미리 예상한다면 세무조사 이전에 기업은 이익조정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무당국에 의한 법인조사에 대해 피조사법인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으므로 세무조사 이전에 이익조정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세무조사 이전 이익조정의 증가는 세무조사를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에 가능한 가설이다. 세무조사는 따라서 세무조사 이후 세무조사기업의 이익조정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1 : 세무조사 이전에는 세무조사기업의 이익조정이 비세무조사기업의 이익조정보다 크다.

가설2 : 세무조사 이후에는 세무조사기업의 이익조정과 비세무조사기업의 이익조정 사이에 차이가 없다.

가설3 : 세무조사 시점까지 세무조사기업의 이익조정의 크기는 증가한다.

가설1은 이익조정과 세무조사 사이에 관련성이 있음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가설의 채택은 세무조사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익조정이 사용되거나 또는 이익조정이 과세소득 조정 목적으로 사용됨을 의미한다. 이익조정이 과세소득의 조정과 관련이 있으면 과세당국은 이익조정을 통해 세무조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2는 세무조사 이후 세무조사기업의 이익조정이 감소하면 이익조정이 통제기업과 다르지 않음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가설의 채택은 세무조사 이전 이익조정이 과세소득의 조정과 관련이 있으며 세무조사로 인해 과세소득 조정 목적의 이익조정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가설3은 세무조사기업을 대상으로 이익조정이 세무조사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익조정의 지속적 증가는 세무조사 대상기업 선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검증모형과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이익조정은 Dechow and Dichev(2002)의 연구모형을 이용하여 측정한 재량적 유동발생액으로 측정하였다. 이익조정 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재량적 유동발생액을 사용한 연구로는 Dechow *et al.*(1995), Burgstahler and Dichev(1997), 박종일·김경호(2002), 최기호(2004)등 다수이다.

Dechow and Dichev(2002) 연구모형은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발생액 중 유동발생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발생액 중 고정발생액은 주로 경영성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의사결정의 수단으로 활용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식(1)에서 잔차는 유동발생액 중에서 과거·현재 또는 미래에 영업현금흐름으로 전환되지 않는 부분으로 재량적 유동발생액으로 해석된다. 즉 잔차는 경영자의 재량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

$$CACC_t = b_0 + b_1 OC_{t-1} + b_2 OC_t + b_3 COC_{t+1} + e_t \quad \text{식(1)}$$

단, $CACC_t$: t기의 유동발생액/(t-1, t)기 총자산평균

OC_t : t기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t-1, t)기 총자산평균

2) 식(1)에서 회귀계수 값은 영업현금흐름 구성요소의 측정오차로 인하여 $0 < b_1 < 1$, $-1 < b_2 < 0$, $0 < b_3 < 1$ 로 기대된다.

총발생액 중 비유동발생액은 현금유입이 없는 수익에서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유동발생액은 총발생액에서 비유동발생액을 차감하여 계상한다. 영업현금흐름은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다.

그런데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량적 유동발생액이 기업특성 변수와 관련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식(1)에 기업규모(SIZE), 수익성(ROA), 부채비율(LEV), 손실여부(LOSS)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기업특성 통제 후 재량적 유동발생액을 재측정하였다.

$$\begin{aligned} CACC_t = & b_0 + b_1 OC_{t-1} + b_2 OC_t + b_3 OC_{t+1} + b_4 SIZE_t \\ & + b_5 LEV_t + b_6 ROA_t + b_7 LOSS_t + u_t \end{aligned} \quad \text{식(2)}$$

단, SIZE : ln(총자산), LEV : 부채/자산
ROA : 영업이익/총자산 LOSS : 손실보고는 1 그렇지 않으면 0

기업특성변수에 의해 재량적 유동발생액을 설명하고 기업특성을 통제한 후 재량적 유동발생액이 '0'과 다르지 않다면, 기업특성변수는 재량적 유동발생액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식(1)과 식(2)에 의한 재량적 유동발생액은 세무조사 시점 t 를 기준으로 전후 3기간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검증모형에는 기업별로 세무조사 $t-3$ 기 자료부터 $t+3$ 기 자료가 사용되었다.³⁾ 그리고 세무조사표본과 비세무조사표본의 재량적 유동발생액을 비교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3. 표 본

국세청이 1998년부터 2000년도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전체 세무조사 대상법인 중에서 상장 제조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통제기업으로는 이 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상장 제조기업을 선정하였다. 이익조정의 측정을 위해서는 이익조정 측정에 사용될 회계수치가 필요한데 표본 중에서 일부는 회계수치 자료의 부족으로 분석과정에서 제외되었다. 즉, 회계이익, 영업현금, 유동발생, 비유동발생, 총자산, 영업이익, 총자산, 부채 등 자료가 미비한 경우 해당 시점의 기업 자료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전체 표본은 1,525 기업-연으로, 구체적인 검증대상 기업의 수는 <표 1>과 같다. 1998년도부터 2000년도 재무자료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기업 수는 188개이지만, 이중 표본에 포함된 것은 모두 144 개이다. 나머지 1,381개는 비세무조사기업에 해당된다. 자료의 부족으로 표본에서 일부가 제외되기는 하였으나 세무조사기업과 비세무조사기업 중에서 표본으로부터 제외된 비중은 비슷하였다.

3) 일부 변수의 경우 기초, 기말 평균치가 사용되므로 세무조사시점 4기 전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표 1〉 표본의 선정

구 분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	1998년도~2000년도
① 상장 제조기업(A) : 개	655	637	628	1,920
표본 기업(B) : 개	504	501	521	1,526
(B/A)*100 : %	76.9	78.6	83.0	79.5
② 세무조사기업(C) : 개	88	66	34	188
표본 기업(D) : 개	67	48	29	144
(D/C)*100 : %	76.1	72.7	85.3	76.6

IV. 실증분석

1. 기술통계

<표 2>는 주요 기업특성 변수의 기술통계치를 정리한 것이다. 변수의 기술통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세무조사표본과 비세무조사표본으로 구분하여 보고하였다. <표 2>에 보고된 자료는 세무조사 시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변수	SIZE	LEV	ROA	LOSS	ACC	CACC	NCACC	OC
비세무 조사 기업	평균	19.162	0.758	0.027	0.664	-0.074	0.000	-0.074	0.042
	표준편차	1.444	0.916	0.121	0.472	0.232	0.110	0.204	0.101
	25%	18.151	0.481	0.007	0.000	-0.119	-0.038	-0.096	-0.008
	50%	19.002	0.626	0.044	1.000	-0.047	0.007	-0.055	0.042
	75%	19.899	0.800	0.076	1.000	0.002	0.046	-0.030	0.093
세무 조사 기업	평균	19.424	0.564	0.066	0.868	-0.041	0.008	-0.049	0.071
	표준편차	1.290	0.165	0.058	0.340	0.096	0.076	0.075	0.099
	25%	18.489	0.433	0.029	1.000	-0.090	-0.039	-0.080	0.022
	50%	19.213	0.580	0.063	1.000	-0.038	0.004	-0.045	0.062
	75%	20.279	0.684	0.091	1.000	0.004	0.050	-0.027	0.116
평균차이 t값		2.292**	-6.864***	6.832***	6.569***	3.292***	1.189	3.064***	3.316***

- 주1) 표본기간은 1998년-2000년이며, 세무조사표본은 144개 비세무조사표본은 1,381개임. 일부 변수의 경우 자료의 부족으로 비세무조사표본이 1,369-1,381개가 사용됨.
- 주2) SIZE : ln(자산), LEV : 부채/자산, ROA : 영업이익/총자산, LOSS : 손실보고=1 그렇지 않은 경우=0, ACC : 총발생/자산평균, CACC : 유동발생/자산평균, NCACC : 비유동발생/자산평균, OC : 영업현금/자산평균
- 주3)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유의적임(양측검증).

세무조사기업은 비세무조사기업에 비해 기업규모는 크고, 부채비율은 낮으며, 수익성은 높은 반면 손실발생비율은 더 높았다. 손실발생을 제외한 세 기업특성변수를 보면 비세무조사기업에 비해 세무조사기업이 더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세무조사표본이 작고 또한 소규모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세무조사기업은 비세무조사기업에 비해 영업현금은 크고, 발생액과 비유동적발생액은 작았다. 전반적으로 세무조사표본과 비세무조사표본 사이의 기업특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재량적 발생액을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3>은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대체로 변수 간에는 크지는 않지만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부채비율은 낮고 수익성은 높으며 비유동발생액과 영업현금흐름은 많았다. 부채비율은 다른 변수들과 모두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수익성은 다른 변수들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을 보였다. 즉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낮을수록 이익을 보고하였으며 발생액은 낮고 영업현금 또한 낮았다. 손실의 보고는 발생액과 양(+)의 관계를 보여 발생액이 큰 기업일수록 손실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액은 영업현금과 음(-)의 관계를 보였다. <표 2>에서처럼 <표 3>에 보고된 상관관계는 세무조사 시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표 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LEV	ROA	LOSS	ACC	CACC	NCACC	OC
SIZE	-0.128***	0.153***	0.141***	0.041	-0.031	0.066***	0.150***
LEV		-0.351***	-0.289***	-0.366***	-0.404***	-0.199***	-0.188***
ROA			0.441***	0.283***	0.329***	0.143***	0.469***
LOSS				0.379***	0.205***	0.325***	0.385***
ACC					0.486***	0.877***	-0.142***
CACC						0.008	-0.280***
NCACC							-0.009

주1) <표 2> 주석참조.

주2) Pearson 상관계수이며, ***, **, * 는 각각 1%, 5%, 10%수준(양측)에서 계수가 유의적임.

2. 세무조사 전후의 이익조정

<표 4>는 식(1)에 따라 세무조사 시점 전후 재량적 유동발생액 추정모형을 정리한 내용이다. 유동발생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영업현금을 독립변수로 한 모형에서 전기와 차기의 영업현금의 계수는 유의적인 음(-)이고 당기의 영업현금의 계수는 유의적인 양(+)이었다. 이론적으로 회귀계수 값의 예측수준은 $0 < b_1 < 1$, $-1 < b_2 < 0$, $0 < b_3 < 1$ 인데, <표 4>의 모형 결과는 이와 일치한다. 한편 모형의 설명력을 보면 세무조사 시점이 가장 낮고 세무조사 시점에서 전후로 멀어질수록 높았다. 이는 세무조사 시점의 회귀수치의 유용성이 가장 낮음을 시사한다. <표 4>의 결과로부터 재량적 유동발생액 추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식1)모형의 잔차는 유동발생이 현금흐름으로 실현되지 못한 정도인 예측오차로 비재량적 유동발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재량적 유동발생액의 추정모형

변수	세무조사 시점(=0) 전후 시점					
	-3	-2	-1	0	1	2
OC_{t-1}	0.255 (14.657 ^{***})	0.333 (13.655 ^{***})	0.341 (13.137 ^{***})	0.344 (12.514 ^{***})	0.297 (11.894 ^{***})	0.239 (11.000 ^{***})
OC_t	-0.668 (-41.411 ^{***})	-0.565 (-24.661 ^{***})	-0.539 (-20.356 ^{***})	-0.454 (-16.087 ^{***})	-0.660 (-26.814 ^{***})	-0.720 (-38.837 ^{***})
OC_{t+1}	0.130 (9.449 ^{***})	0.099 (4.514 ^{***})	0.150 (5.895 ^{***})	0.060 (2.198 ^{**})	0.243 (11.791 ^{***})	0.230 (13.561 ^{***})
$adj R^2$	0.545	0.304	0.237	0.175	0.342	0.507
F	573.640 ^{***}	219.386 ^{***}	156.733 ^{***}	107.787 ^{***}	264.547 ^{***}	518.215 ^{***}

주1) 표본기간은 1998년-2000년이며, 표본은 일부 변수의 경우 자료부족으로 1,513-1,525개임.

주2) 모형은 $CACC_t = b_0 + b_1 OC_{t-1} + b_2 OC_t + b_3 OC_{t+1} + e_t$ 이며, 상수는 제시하지 않음.

주3) $CACC_t$: t기의 유동발생액/(t-1, t)기 총자산평균

OC_t : t기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t-1, t)기 총자산평균임.

주4) 셀 내 ()의 숫자는 계수값과 t값이며, ***, **, * 는 각각 1%, 5%, 10%수준(양측)에서 계수가 유의적임.

<표 5>는 세무조사를 받은 표본과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표본을 대상으로 <표 4>에 의해 추정된 재량적 유동발생액을 세무조사 시점 전후로 조사한 것이다. 세무조사 시점을 포함한 이전 기간에는 세무조사를 받은 표본의 경우 재량적 유동발생액이 유의적으로 양(+)인 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표본은 '0'과 다르지 않았다. 이는 세무조사기업들이 세무조사 이전에 재량적 유동발생액을 통해 이익을 조정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재량적 유동발생액이 양(+)의 값을 갖는 것은 재량적 유동발생을 통해 이익을 크게 보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무조사 이후의 기간을 보면 세무조사표본의 경우에도 재량적 유동발생액이 '0'으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무조사 후 재량적 유동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과 다르지 않음은 두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검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세무조사를 받은 표본에 대해서 재량적 유동발생액의 크기를 보면 세무조사 시점까지 증가하였다. 세무조사 시점 이전 여러 해에 걸쳐 재량적 유동발생액을 통해 이익을 조정하며 그 크기는 세무조사 대상기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표 5>의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과 부합한다. 세무조사 이전에는 세무조사기업의 이익조정이 비세무조사기업의 이익조정보다 크며, 세무조사 이후에는 세무조사기업의 이익조정과 비세무조사기업의 이익조정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세무조사 시점까지 세무조사기업의 이익조정의 크기는 증가하였다.

<표 5> 이익조정 : 재량적 유동발생액의 비교

재량적 유동발생액		세무조사 시점(=0) 전후 시점					
		-3	-2	-1	0	1	2
비세무조사 표본	평균 (t값)	-0.001 (-0.580)	-0.001 (-0.613)	-0.002 (-0.628)	-0.001 (-0.438)	-0.001 (-0.207)	-0.001 (-0.288)
	표준편차	0.048	0.080	0.094	0.101	0.091	0.081
	25%	-0.024	-0.027	-0.027	-0.027	-0.024	-0.024
	50%	0.003	0.006	0.006	0.008	0.006	0.004
	75%	0.027	0.036	0.038	0.040	0.035	0.034
세무조사 표본	평균 (t값)	0.007 (2.111 ^{**})	0.013 (2.971 ^{***})	0.015 (3.109 ^{***})	0.011 (2.565 ^{**})	0.005 (1.005)	0.006 (1.667 [*])
	표준편차	0.041	0.051	0.058	0.053	0.058	0.043
	25%	-0.011	-0.009	-0.012	-0.015	-0.024	-0.017
	50%	0.007	0.015	0.015	0.010	0.009	0.005
	75%	0.028	0.043	0.047	0.038	0.040	0.031
평균차이 t값		2.178 ^{**}	2.922 ^{***}	3.046 ^{***}	2.414 ^{**}	0.990	1.573

주1) 표본기간은 1998년-2000년이며, 표본은 세무조사표본 144개 비세무조사표본 1,381개임.

주2) <표 4>의 주석 참조.

2. 세무조사 전후의 기업특성 통제 후 이익조정

<표 6>은 식(2)에 따라 세무조사 시점 전후 기업특성 통제 후 재량적 유동발생액 추정 모형을 정

리한 내용이다. 유동발생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영업현금 및 기업특성 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모형에서 전기와 차기의 영업현금의 계수는 유의적인 음(-)이고 당기의 영업현금의 계수는 유의적인 양(+)이었다. 대체로 유동발생액에 대해서 기업규모는 음(-), 부채비율은 양(+), 수익성은 양(+), 손실여부는 음(-)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이익을 보고할수록 유동발생액이 큼을 의미한다. 그런데 기업특성 변수 중에서 기업규모는 세무조사 시점과 전후(-1~+1)에서는 유의적이었으나 나머지 기간에는 유의성이 없거나 낮았다. 이는 다른 기업특성 변수들과 달리 기업규모는 세무조사 시점에 가까울 경우에만 유동발생액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 6>의 결과로부터 판단하건데 기업특성변수는 유동발생액을 유의적으로 설명하는 변수이므로, 기업특성과 유동발생액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식2)모형의 잔차는 유동발생이 현금흐름으로 실현되지 못한 정도인 예측오차로 기업특성 통제 후 비재량적 유동발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 기업특성 통제 후 재량적 유동발생액의 추정모형

변수	세무조사 시점(=0) 전후 시점					
	-3	-2	-1	0	1	2
OC_{t-1}	0.213 (15.664***)	0.208 (10.848***)	0.195 (8.780***)	0.191 (8.638***)	0.184 (9.571***)	0.112 (7.275***)
OC_t	-0.787 (-60.133***)	-0.754 (-40.627***)	-0.707 (-30.656***)	-0.684 (-28.909***)	-0.780 (-36.739***)	-0.857 (-57.211***)
OC_{t+1}	0.096 (8.885***)	0.071 (4.187***)	0.076 (3.534***)	0.028 (1.285)	0.096 (5.886***)	0.086 (7.026***)
$SIZE_t$	0.001 (0.825)	0.0002 (-0.153)	-0.003 (-2.194**)	-0.006 (-4.513***)	-0.005 (-4.121***)	-0.002 (-1.671*)
LEV_t	-0.038 (-9.521***)	-0.075 (-14.062***)	-0.038 (-9.165***)	-0.040 (-16.192***)	-0.044 (-26.015***)	-0.046 (-32.437***)
ROA_t	0.444 (21.449***)	0.404 (19.097***)	0.382 (15.676***)	0.371 (17.529***)	0.251 (12.329***)	0.303 (17.416***)
$LOSS_t$	-0.021 (-8.207***)	-0.024 (-6.176***)	-0.033 (-6.790***)	0.028 (5.700***)	-0.024 (-5.670***)	-0.022 (-6.258***)
$adj R^2$	0.727	0.592	0.480	0.498	0.633	0.774
F	545.495***	311.661***	199.777***	216.080***	375.852***	737.321***

주1) 표본기간은 1998년-2000년이며, 표본은 일부 변수의 경우 자료부족으로 1,513-1,525개임.

주2) 모형은 $CACC_t = b_0 + b_1 OC_{t-1} + b_2 OC_t + b_3 OC_{t+1} + b_4 SIZE_t + b_5 LEV_t + b_6 ROA_t + b_7 LOSS_t + u_t$ 이며, 상수는 제시하지 않음.

주3) $CACC_t$: t기의 유동발생액/(t-1, t)기 총자산평균, OC_t : t기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t-1, t)기 총자산평균, $SIZE$: ln(총자산), LEV : 부채/자산, ROA : 영업이익/총자산 $LOSS$: 손실보고는 1 그렇지 않으면 0임.

주4) 셀 내의 숫자는 계수값과 t값이며, ***, **, * 는 각각 1%, 5%, 10%수준(양측)에서 계수가 유의적임.

<표 7>은 세무조사를 받은 표본과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표본을 대상으로 <표 6>에 의해 추정된 기업특성 통제 후 재량적 유동발생액을 세무조사 시점 전후로 조사한 것이다. 기업특성을 통제한 후 재량적 유동발생액은 <표 5>의 기업특성 통제 전 재량적 유동발생액과 크게 달랐다. 세무조사 표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2기 전을 제외하고는 기업특성 통제 후 재량적 유동발생액이 '0'과 다르지 않았다. 이는 세무조사를 받은 표본과 그렇지 않은 표본 사이에 재량적 발생을 통한 이익조정의 차이가 세무조사를 전후하여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는 기업특성에 의해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무조사표본과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표본에 대해 비재량적 유동발생액을 설명하는 기업특성변수가 서로 상이함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표본과 비세무조사표본을 구분하여 기업특성과 재량적 유동발생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7> 이익조정 : 기업특성 통제 후 재량적 유동발생액의 비교

재량적 유동발생액		세무조사 시점(=0) 전후 시점					
		-3	-2	-1	0	1	2
비세무조사 표본	평균 (t값)	0.0003 (-0.320)	-0.001 (-0.424)	0.0005 (-0.233)	0.0003 (0.136)	0.0002 (0.107)	0.0001 (-0.019)
	표준편차	0.037	0.061	0.077	0.078	0.067	0.054
	25%	-0.019	-0.023	-0.025	-0.024	-0.023	-0.025
	50%	-0.002	0.000	0.000	0.000	-0.001	-0.001
	75%	0.018	0.023	0.029	0.028	0.024	0.023
세무조사 표본	평균 (t값)	0.003 (1.027)	0.007 (1.936*)	0.005 (1.049)	-0.003 (-0.766)	-0.002 (-0.459)	0.0003 (0.085)
	표준편차	0.035	0.041	0.053	0.043	0.049	0.037
	25%	-0.019	-0.018	-0.021	-0.026	-0.026	-0.025
	50%	-0.003	0.006	0.004	-0.002	-0.003	-0.003
	75%	0.024	0.034	0.037	0.022	0.020	0.020
평균차이 t값		1.076	1.927*	1.047	-0.728	-0.462	0.085

주1) 표본기간은 1998년-2000년이며, 표본은 세무조사표본 144개 비세무조사표본 1,381개임.

주2) <표 6>의 주석 참조

<표 8>은 세무조사표본과 비세무조사표본을 구분하여 기업특성과 유동발생액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이다. 대체로 세무조사표본과 비세무조사표본 사이에 유동발생액을 설명하는 기업특성 변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세무조사표본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재량적 유동발생액이 작았으나, 세무조사표본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재량적 유동발생액은 오히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채비율과 손실여부는 음(-)의 관련성을, 수익성은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그러나 그러한 관련성을 보인 시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가령 손실여부의 경우 비세무조사표본은 전 기간에서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보인 반면, 세무조사표본은 세무조사 이전에만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보였다.

<표 8>의 결과는 기업특성과 유동발생액 사이의 관련성이 세무조사표본과 비세무조사표본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제시한다. 두 표본 사이에 기업특성 변수의 계수부호와 유의적인 시점 등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는 세무조사를 받은 표본과 그렇지 않은 표본 사이에 재량적 발생을 통한 이익조정의 차이가 세무조사를 전후하여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는 기업특성에 의해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무조사표본과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표본에 대해 비재량적 유동발생액을 설명하는 기업특성변수가 서로 상이함을 의미한다.

〈표 8〉 기업특성 통제 후 재량적 유동발생액의 추정 : 세무조사표본과 비세무조사표본

패널A :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표본						
변수	세무조사 시점(=0) 전후 시점					
	-3	-2	-1	0	1	2
OC_{t-1}	0.205 (14.190 ^{***})	0.200 (9.693 ^{***})	0.189 (7.852 ^{***})	0.190 (7.902 ^{***})	0.185 (8.878 ^{***})	0.099 (6.025 ^{***})
OC_t	-0.785 (-56.994 ^{***})	-0.750 (-37.431 ^{***})	-0.710 (-28.584 ^{***})	-0.674 (-26.028 ^{***})	-0.784 (-34.218 ^{***})	-0.856 (-53.931 ^{***})
OC_{t+1}	0.097 (8.483 ^{***})	0.073 (4.038 ^{***})	0.070 (3.024 ^{***})	0.015 (0.650)	0.093 (5.472 ^{***})	0.084 (6.536 ^{***})
$SIZE_t$	0.0004 (0.459)	-0.001 (-0.942)	-0.004 (-2.569 ^{***})	-0.007 (-4.543 ^{***})	-0.005 (-3.944 ^{***})	-0.002 (-1.361)
LEV_t	-0.042 (-9.804 ^{***})	-0.075 (-13.465 ^{***})	-0.039 (-8.870 ^{***})	-0.040 (-15.562 ^{***})	-0.045 (-25.392 ^{***})	-0.046 (-31.493 ^{***})
ROA_t	0.446 (20.412 ^{***})	0.409 (18.220 ^{***})	0.382 (14.853 ^{***})	0.368 (16.574 ^{***})	0.244 (11.365 ^{***})	0.300 (16.484 ^{***})
$LOSS_t$	-0.021 (-7.787 ^{***})	-0.025 (-5.959 ^{***})	-0.035 (-6.707 ^{***})	0.029 (5.504 ^{***})	-0.024 (-5.362 ^{***})	-0.023 (-6.247 ^{***})
$adj R^2$	0.728	0.581	0.476	0.489	0.634	0.774
F	496.535 ^{***}	268.641 ^{***}	177.509 ^{***}	188.412 ^{***}	342.110 ^{***}	668.428 ^{***}

패널 B : 세무조사를 받은 표본

변수	세무조사 시점(=0) 전후 시점					
	-3	-2	-1	0	1	2
OC_{t-1}	0.252 (6.023 ^{***})	0.318 (7.441 ^{***})	0.275 (5.442 ^{***})	0.172 (4.451 ^{***})	0.158 (3.537 ^{***})	0.220 (5.790 ^{***})
OC_t	-0.741 (-16.334 ^{***})	-0.789 (-19.574 ^{***})	-0.722 (-13.322 ^{***})	-0.802 (-19.832 ^{***})	-0.737 (-15.179 ^{***})	-0.894 (-21.302 ^{***})
OC_{t+1}	0.059 (1.704 [*])	0.029 (0.707)	0.139 (2.989 ^{***})	0.163 (4.147 ^{***})	0.121 (2.230 ^{**})	0.156 (3.641 ^{***})
$SIZE_t$	0.002 (0.868)	0.008 (2.734 ^{***})	0.009 (2.435 ^{**})	0.004 (1.492)	0.0003 (-0.088)	-0.001 (-0.497)
LEV_t	-0.004 (-0.317)	-0.053 (-2.811 ^{***})	-0.060 (-2.432 ^{**})	-0.087 (-3.667 ^{***})	-0.080 (-3.103 ^{***})	-0.063 (-3.940 ^{***})
ROA_t	0.403 (6.185 ^{***})	0.364 (6.070 ^{***})	0.420 (5.575 ^{***})	0.573 (7.968 ^{***})	0.433 (6.719 ^{***})	0.420 (6.422 ^{***})
$LOSS_t$	-0.017 (-1.948 [*])	-0.017 (-2.094 ^{**})	-0.006 (-0.492)	0.013 (1.252)	-0.017 (-1.319)	0.003 (0.399)
$adjR^2$	0.724	0.773	0.580	0.740	0.648	0.800
F	51.973 ^{***}	70.688 ^{***}	29.232 ^{***}	59.183 ^{***}	38.554 ^{***}	82.578 ^{***}

주1) <표 6>의 주식 참조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는 이익조정의 개연성이 높은 사건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전후 이익조정의 양상을 실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과세소득의 누락에 의해 세무조사를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기업은 이익조정을 통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조정함으로써 세무조사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할 것이다. 세무조사 이전에는 이익조정이 증가하며, 세무조사 이후에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과 차이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익조정을 통한 과세소득의 누락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세액을 추징당하면 세무조사 이후 이익조정이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조사와 이익조정 사이에 관련성을 의미하며 세무조사는 이익조정 제거에 유효한 수단으로 판단할 수 있다.

1998년부터 2000년도 사이의 기간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상장 제조기업과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상장 제조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세무조사 이전 세

무조사기업의 이익조정은 유의적인 양(+)의 값이었으며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의 이익조정은 '0'과 다르지 않았다. 둘째, 세무조사 이전 세무조사기업의 이익조정은 조사된 3기간 동안 상승하였으며, 세무조사 이후 기간에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과 동일하게 이익조정이 '0'과 다르지 않았다. 셋째, 기업특성을 고려한 유동발생액 설명 모형에서는 세무조사기업과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 사이에 유의적인 기업특성변수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조사와 이익조정 사이에 관련성이 있으며, 세무조사 전후로 이익조정의 양상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세무조사는 과세소득을 조정한 결과이고, 이익조정은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업의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라는 이익조정의 개연성이 큰 사건을 대상으로 이익조정의 양상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향후 이익조정의 개연성이 큰 다양한 사건을 대상으로 이익조정의 양상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무조사 자료와 회계자료의 부족으로 최근 자료와 장기간을 분석하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점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김권중 · 김문철 · 전중열. 2004, “신규상장기업의 이익조정 동기”, 회계학연구 제29권 제4호 : 87-116.
- 나종길 · 최 관. 2003, “회계발생액과 차별적 감사수요”, 회계학연구 제28권 제1호 2003년 : 1-31.
- 나종길 · 최기호, 2001, “이익조정에 대한 비적정의견 성향과 감사품질”, 회계학연구 제26권 제3호 2001년 : 51-89.
- 박종일 · 김경호. 2002. “세금비용과 이익조정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7권 제2호 2002년 6월 : 81-116.
- 심충진 · 김문현 · 이종운. 2006.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 간의 차이와 세무조사 및 추정세액에 대한 실증연구”. 세무학연구 제23권 제4호 2006년 12월 : 9-27.
- 전규안. 2004.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의 상충관계가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9권 제1호 2004년 3월 : 29-56.
- 최기호. 2004. “조세비용과 재무보고비용의 상충관계”. 세무학연구 제21권 제1호. 2004년 3월:103-131.
- 최정호. 2005, “회계제도개선과 감사품질이 재량적 발생의 크기와 정보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0권 제2호 : 107-149.
- 한봉희. 1998. “발생주의적 조정의 유용성 저하에 관한 실증연구”, 회계학연구 제23권 제4호 1998년 : 53-79.
- Becker, C., M. DeFond, J. Jiambalvo, K. Subramanyam. 1998,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Vol 15 : 1-24.
- Burgstahler, D. and I. Dichev. 1997. Earnings Management to Avoid Earnings Decreases and Loss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4(December) : 99-126.
- Dechow, P.D., I.D. Dichev. 2002. The Quality of Accruals and Earnings : The Role of Accrual Estimation Errors, *The Accounting Review* 77 (Supplement) : 35-59.
- Dechow, P., R. Sloan, and A. Sweeney. 1995.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0(April) : 193-225.
- DeFond, M. J. Jiambalvo. 1994, Debt Covenant Violation and Manipulation of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7 : 145-176.
- Guenther, D. 1994. Measuring Earnings Management in Response to Corporate Tax Rate Changes : Evidence from the 1986 Tax Reform Act. *The Accounting Review* 69January : 230-243.
- Healy, P. M. J. M. Wahlen. 1999. A Review of the Earnings Management Literature and Its Implications for Standard Setting, *Accounting Horizons* 13 : 365-383.
- Kasznik, R. 1999. On the Association Between Voluntary Disclosure and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7 : 57-821.
- Kreutzfeldt, R., W. Wallase. 1986. Error Characteristics in Audit Populations : Their Profiles and Relationships to Environmental Factor.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6(Fall) : 20-43.
- Watts R., J. Zimmerman. 1986. Positive Accounting Theor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The Behavior of Earnings Management Before and After Tax Investigation

Moon Hyun Ky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behavior of earnings management around tax investigation. Tax investigation is the event with high probability of the firms's trying earnings management. The firms who omitted tax income will reduce the risk of tax investigation by reducing the difference between accounting earnings and tax earnings using earnings management.

As a result of analysis,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 The discretionary current accruals kept getting higher for three years before tax investigation. But after tax investigation, the discretionary current accruals went down to zero. For years around tax investigation, the discretionary current accruals of control firms were significantly zero.

These findings mean that earning management is related to tax investigation, and the behavior of earnings management changes before and after tax investigation. It is suggested that earnings management is the firms' own decision—making of reducing the difference between accounting earnings and tax earnings.

<Key words> tax investigation, earnings management, discretionary current accruals

* Professor, Department of Trad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